

# 민주 도지사 경선 후보자들, 전북 공약 발표

김관영 "새만금에 국제학교 적극 유치"

김윤덕 "새만금에 K-POP타운 조성"

안호영 "전북전철시대 결코 미룰 수 없어"

◇김관영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세계적 명성의 국제학교 적극 유치"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조성 과 미래의 청소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학교'의 새만금 유치를 힘써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 등 해외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레저공간이나 정류장의 역할만으로는 전북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을 싱가포르의 센토사섬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같이 개발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즈니랜드와 같은 흡입력이 뛰어난 매력적인 테마파크를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며 "크루즈와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 리조트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전북 새만금은 대규모 테마파크와 관광자원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을 비상시키는 성공적인 지역개발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아울러, 새만금에는 관광자원 개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세계 지구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

학교'를 유치해 전북도가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학교가 세워지면 주변이 발전한다. 제주와 송도 개발이 성공한 원인도 좋은 국제학교를 유치한 것 때문"이라며 "국제학교 유치를 전북도가 직접 뛰어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과 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이 전제돼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전북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새만금에 1조원 규모 K-POP타운 조성"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전북도를 "문화관광 수도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1조원 규모 K-POP타운 조성, 서해안권 6차 산업 관광벨트 조성, 남원·장수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권 광역 관광 개발, 임실·순창 등 체류형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전북을 문화관광의 일번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서해안권 6차 산업 관광벨트 조성, ▲지리산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추진,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자인 김관영 예비후보(사진 왼쪽),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이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체류형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 ▲도심 수변시설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1조원 규모 새만금 K-POP타운 조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을 세계 청소년의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며 "1조원 규모의 새만금 K-POP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K-POP 타운 조성을 위해 음악 관련 특수목적고, 아이돌 양성 사관학교 설립 등 '에듀타운'을 조성하고, 국내 4대 메이저 기획사 및 중소 기획사가 공존하는 아이돌 타운, 세계 최대 규모의 K-POP 공연 전시,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K드림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전북도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



강한 투자유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산·익산·김제·정읍·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권 6차 산업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남원·장수를 중심으로 강남과 전남을 아우르는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섬진강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심 수변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 정원화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무형유산원 위상 제고를 위한 인프라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의 청병으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 적자"라면서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북도 또한 예외는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철 운행에 따른 작가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패배주의적 사고"라며 "강원도 춘천은 전철이 개통된 이후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하면서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코레일에 운영을 맡기면 열차 구입에는 전북도 부담이 없고, 단선으로 운영하면 시설투자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운행 초기의 수익성 문제는 전북도와 해당 구간 지자체가 일부 보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기준 전주 익산 군산 간 통학인구는 1일 3만3,000여명에 달하고, 향후 새만금에 산업단지 조성되고, 전주한옥마을 및 익산의 역사문화유적 방문객이 늘어날면,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교통물류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특히,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광역특별회계 예산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교통물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호영 전북도지사 경선후보가 대표발의한 전북새만금특자치도 법안에는 특자도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특별회계 내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을 두거나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호상 기자

## "역대급 국비 확보 보여줄 것" 호소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재부 출신으로 역대급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전주에 가장 필요한 경제성장"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 예비후보는 18일 "전북 정부부지사 제임 시 중앙관계의 인맥을 풀가동 정부 부처를 설득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대기업 투자유치도 이뤄냈다"며 "예산해결사의 능력을 갖춘 제가 당선되면 전주가 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후보는 "국가예산확보 방법을 아는 예산전문가가 리더가 돼야 예산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며 "지역발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끌어와 획기적인 전주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비 확보를 바탕으로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첫마중길 지하도로, 종합경기장·대항방직터 개발 등 전주의 현안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팔복동산단투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기업 유치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전주대변혁을 위해 시장 출마를 결심한 만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비켜 가지 않을 각오"라며 "가장 많은 중앙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전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전주 시민의 현명한 안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천정부지로 치솟은 농자재값, 대책 마련 시급"

김철수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더불어민주당)이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농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비료의 경우 20kg 한 포대 가격이 지난해 1만800원에서 1만8,300원(17%)이나 올라 2만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복합비료는 지난해 1만1,000원에 올랐던 2만1,300원으로 1만5,300원(139%)이나 인상됐다.

또한, 면세유는 전년 대비 30%가량 오른데다, 농업용 파이프 가격은 많게는 75%, 제조제 가격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농자재 가격이 턱없이 올라



포기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농자재 가격 인상은 결국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농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며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먼저, "가장 크게 오른 비료의 경우, 정부에서 밝힌 대로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 보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비료에 대한 가격

인상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시설하우스 단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 단가를 현 상태에 맞게 인상해 더 이상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지속되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민의 필수 농자재 구매 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철수 의원은 "지금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흉년 농사를 기대하기보다 농자재값이 줄어야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전북에서민들은 농민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포용사회 위한 과제, 선택 아닌 필수"

이병도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18일 제 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면서 공행정책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110번째 당사국이다. 지난 2010년도에 국내에서 공식 발효된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법 제정으로 뒷받침 됐고, 전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자체법규 제정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차원의 이행은 부족하다. 이에, 이 의원은 "포용사회 개념이 가치 지향적이고 기업유치나 SOC건설과 달리 가치적으로 정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호상 기자



'공공행정'은 법과 제도의 이행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포용사회를 향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이른바 '전장연 사태'에 관해서도 장애인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동의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문명적"이라고 비난한 것은 공당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과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찬반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도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행사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8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구이 119안전센터 신설 부지변경 대상지를 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시 신설 부지가 구이면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빠른 출동이 어렵고 부지 매입가격, 활용도 등의 사유로 통과되지 못해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변경된 부지가 구이119안전센터 설치 대상지로 최적지인지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모든 집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하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청년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 익산시 지역 대학생·청년 연대는 18일 오전 원광대학교에서 김윤덕 민주당 경선 후보를 둘러싸고 전북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민주당 후보다라며 지지 선언을 가졌다. /유호상 기자

전북 보훈단체 회원들·도내 교수 217인 "김관영 지지"

18일 전북도 소재 보훈단체 소속 회원(이하, 전북보훈가족보단)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김관영 도지사 후보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담은 보훈정책·행정을 힘있게 추진할 책임자는 김관영 후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병근 특보단장은 "김관영 예비후보는 위기의 전북도를 변화시킬 젊은 리더"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북의 경제력과 보훈 가족의 권리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전북지역 3만 1,427명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 행정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지역 대학교수 217인들도 전북 새만금특별자치도 실현과 전국 5위권 광역자치단체로의 도약을 선도하며, 광복상대할 때 전라북도를 이룩하는데 젊고 유능하며, 역사의식이 부철한 정치가인 김관영 예비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 "새로운 임실119 프로젝트 추진"

한완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완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전 전북도의원)가 18일 임실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임실 예산 1조원 시대·일자리 1천개를 창출해 임실발전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임실군수 출마 회견을 가진 후 "새로운 임실! 119 프로젝트 완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왔다. 그는 "2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



온 예산 전문가로서 의 강점을 살려나갈 것이다"면서 "민주당과 중앙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임실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유호상 기자